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8월 22일 (제111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구조조정

구조조정(構造調整)이란 엮을 구(構), 지을 조(造), 고를 조(調), 가지런할 정(整)으로,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개혁 작업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 삶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제일일진대, 필요 없는 것을 골라 버릴 줄 아는 기술, 복잡한 것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는 기술이 지혜가 아닐까.

내 지인 중의 하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자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돈이 없어서? No. 그는 상당한 재력가다.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니가 굳이 큰 집이 필요 없더라는 것이다.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청소만 힘들고... 이것이 삶의 구조조정이요, 지혜다.

자! 옷장과 신발장도 뒤져봐라. 입지도 신지도 않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정리하라. 주부님들도 이것저것 반찬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라. 한두 가지 맛있게 하는 지혜를 발휘해보라. 어느 아버지가 매일 이 친구, 저 친구 하며 돌아다니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들 친구를 좀 정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 옷에 피를 묻히고 아들과 함께 그 많은 친구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노라, 도와 달라.’ 했건만 그 많은 친구 중 어느 누구도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 친구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니 단번에 ‘어서 들어와라. 얼마나 놀랐냐?’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한 친구가 귀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맞다. 예전에 나도 해외선교를 갈 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갔지만, 지금은 소수의 정에 7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생이란 길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진대 짐이 무거워야!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더욱 멀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경주하려고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뛰라 했다. 몸을 문에 매어놓고 달려봐라. 힘껏 뛰어도 그 자리다. 얽히고설킨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로 그 꼴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오라 하신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말씀이다.

자고로 멀리 가고, 높이 오르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그러면 훨훨 날 것이다.

분쟁과 다툼은 둘 다 멸망뿐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말고 모두 철저히 백신접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곧 예배의 회복과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끈다는 우리 선교사역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었고 현재 접종 중에 있건만 악한 마귀는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계14:9~11).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은 이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의 결과요, 빨리, 그리고 모두가 접종해서 더 큰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당국이 전 의료진 및 봉사요원들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에도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 사회,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를 말하지만 협력의 구도로 가야지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하고 무너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들 농사를 잘못지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선 것이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母子)를 내친 것입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켰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선교 원칙에 의견이 다르자 각자 다른 길로 갔던 것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최대 99명으로 제한된 인천예수중심교회 예배 광경

혜방코자 엉뚱한 이야기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백신과 666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에 바코드가 찍힌다, 칩이 박힌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나도 누구보다 기도하는 중으로서 확실히 말하지만, 666 사건은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할 일이나 현재 코로나 백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666 사건은 매매, 곧 상거래를 위해 손이나 이마에 표를 심어서 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사고 팔 수 없고, 오직 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자들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악한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곧 666이라 기록하고 있고(계13:16~18),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방역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갈 것인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분쟁과 다툼에 대해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하셨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니냐?’ 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만일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마12:26).

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선전들은 항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허구한 날 싸워대는 집안보다 비록 마른 떡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먹는 화목한 집안이 백번 낫습니다(잠17:1). 오죽하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움막이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잠21:9, 25:24) 했겠습니까? 소리 나는 바퀴는 갈아 끼워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마5:9)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만 들끓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두가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3:10~21)

역동적인 삶을 원하면 목표를 설정하라

역동적인 삶을 원하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가 당신의 삶을 신바람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3년 후 파리 올림픽을 위해 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 땀이 비 오듯 하는 강훈련에도, 감독의 불호령에도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배우가 한겨울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구르기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연기를 너끈히 해내는 것도 그들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스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잘 되어 흥행대박을 치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목표가 있기에 임계점을 넘나들며 혼신을 다해 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냥감이 될 것이냐 사냥꾼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는 의욕이 넘칩니다. 목표가 의욕을 생성케 하는 묘약인 셈입니다.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을진대 포기하거나 피곤할 리가 없지요.

언젠가 제 영어통역을 해주는 임 박사가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때 저는 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지구촌에 전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며, 열 고을의 왕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고 작은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를 교구화 하리라’는 목표부터, ‘전 세계와 전국의 체육관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나라와 민족에 평화통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런 목표들이 저를 쉬지 않고 달려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 김일성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목표와 ‘백만 명 집회를 하리라’는 목표가 있기에 잠시도 나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갈 길이 먼데 어찌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겠습니까?

목표가 확실한 자와 목표가 없거나 모호한 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부평초와 같고, 표류하는 배와 같아 이미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달리기

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방향 없이 이리저리 달린다면 어떻게 끝난단 말입니까?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사람일지라도 과녁이 없다면 어디에 활을 쏘단 말입니까? ‘명문대에 가리라’는 목표를 세운 수험생과 ‘아무 대학이나 가지’ 하는 수험생의 공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업이니까’ 하고 세일즈하는 자와 ‘이걸 벌어야 얼마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목표가 분명한 자의 영업 방식과 열도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

느 배

역이 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플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두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녀는 역경이 역경인 줄 모르고 힘차게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윤여정 씨를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어린 자식을 살리겠다는 목적이 그녀로 하여금 무모하리만큼 대범한 행동과 지혜를 발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록하면 시험에 들고, 뺄 하면 교회 가기 싫은 분들,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먼저 불평불만부터 터지는 분들,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에 받을 면류관과 상이 우리의 목

표입니다. 사도 바울만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9). 하나님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7)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자는 누가 하라고 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상을 보고 뛰어들어 그 날에 목표를

표

를 둔 자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 유포아를 쌓지 않습니다. 동록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지요.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이 목표가 된 자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여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더욱 기도하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배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날에 받을 상은 마치 사과 씨 안의 사과처럼 축광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헌신, 아주 작은 헌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행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받을 상은 사과 씨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사과를 거두는 것처럼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어찌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남들이 다니니까, 부모가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그러면 다니는 당신도, 보내는 누군가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성전에 나오고 싶지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과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지난주일까지 그렇게 무겁기만 하던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천 원

내기도 아깝던 헌금이 천원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될 것이고, ‘왜 저 사람들은 주일에 나와 종일 저러고 있나?’ 했던 것이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태하고 수동적인 삶이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지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뭇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9:26~27)고 했습니다. 향방 없는 자의 삶, 목표가 없는 자의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고 사는 삶,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하십니다(요15:14). 친구는 곧 동지요, 뜻을 같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의 러닝메이트로서 그분의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다면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봄에 나른함을 이기고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거둬 곡식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목표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목표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표를 꼭 붙들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아들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한나, 금의환향을 목표로 가진 야곱,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겠다고 결심한 느헤미야, 쫓대를 향하여 달린 사도 바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에 온몸을 던진신 예수님. 모두 남들의 무시와 핍박과 야유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이제라도 작은 목표부터 세워봅시다. 그러면 당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냥감같이 매번 숨고 소극적이던 인생이 사냥꾼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말입니다. 매사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삶, 신바람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경기는 꼭 이겨야 한다

그렇다. 모든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기고 싶고, 또 이겨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모든 경주를 승리로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리고 나를 보고 인내로 이겨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니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벧후 2:19) 하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끝내 월계관은 이기는 자만 받지 않느냐, 너희도 이같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를 위해 늘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전9:24~25)고 하셨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시록에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빠지지 않고 격려한 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일곱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이다. 그래서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경주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야만 하는 이유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경주, 세상 삶 속의 수없는 크고 작은 경주에서 이기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셔서 나누어보려 한다. 첫째는 죄를 벗어나고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죄를 벗고 뛰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일단 죄를 벗고 시작해야 한다. 영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죄, 혼적으로는 양심에 꺼리는 죄, 육적으로는 나라가 정하는 죄(법)를 벗고 뛰어야 성공할 수 있다. 죄의 울무에 걸린 상태에서 뛰는 것은 죽어라고 뛰어야 제자리밖에 안 된다. 죄가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와 함께 경주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해 아래 수고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했다. 평생 제자리 뛰기 하며 인생을 낭비했다는 회고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울무에서 나와 다시 경주하자. 먼저 경주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루만 하고 말 경주가 아니고 일생을 해야 하는 경주이니 당연히 지구력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꾸준히 마라톤 하듯이, 그러나 쉬지 말고 열심히 달려라. 그래야 이긴다. 늦더라도 거북이처럼 목표를 향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달려보자. 어느덧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주님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이시대 목사**

:: 성경에세이 ::

약속은 생명이다

여보게!

어느 날 어느 기업의 CEO와 공을 치기로 했네. 그런데 그 대신 전무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다가 말하기를 “저희 회장님이 팔을 다치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회장이 도착했는데, 그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팔을 다쳐서 공을 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공치는데 함께 견뎌주세요.”라고 말하더군. 내가 그럴 것 없다고 해도 그는 그날 라운딩하는 나와 끝까지 함께 했네. 나는 ‘이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다시 봤다네.

여보게!

영조(英祖) 때 10년이나 호조판서를 지낸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어느 날 임금의 동구릉 행차가 있다 해서 정홍순도 많은 구경꾼 틈에 끼여 구경을 하고 있었지. 마침 이때가 우기인지라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정홍순은 우의를 준비했기에 당황하지 않았네.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말일세. 우의를 없는 자를 위한 배려였지. 정홍순은 비를 맞고 있는 어느 젊은 선비에게 우의 하나를 다음 날 돌려받

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빌려줬지.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젊은 선비가 우의를 돌려주지 않자 정홍순은 직접 찾아 나섰다네. 찾아갔더니 선비는 우중에 사돈이 와서 빌려드렸으니 사흘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네. 그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정홍순은 그 선비를 다시 찾아갔네. 그런데 방귀 편 놔서 성난다고 그 젊은 선비 하는 말, “늙은 우의 하나 갖고 참 극성이오. 내가 장사가 지나가면 하나 사드리겠소.” 그러자 정홍순은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의가 아니라 신의요.” 하면서 그 젊은 사돈네 집까지 찾아가 그 우의를 찾아왔다네.

세월이 흘러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호조좌랑이 신입인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어디서 본 얼굴인 거야. 기억을 더듬어보니, 20년 전 우의를 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선비였네. 정홍순은 그를 보고 “하찮은 우의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못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큰 돈주머니를 맡기겠는가?” 하며 그를 돌려보냈다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신용불량자야. 약속은 생명이거든. 그러니 약속에 신중하고, 약속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게나. **봉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을 무척 신경 쓰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심각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의사가 어떤 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상이 자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심각한 병이 아닐까...’ 한숨을 쉬니 주방일을 하던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할아버지가 TV에 나온 의사가 이야기하는 증상이 나랑 똑같다며 심각한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니 할머니가 TV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곧 프로그램이 끝나서 사회자가 종료 멘트를 하였다. “오늘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걱정, 대학생은 취업 걱정, 직장인은 어려운 직장생활에, 노년기가 들어갈수록 건강 걱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염려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왜?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차라리 해결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기 때문이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는가? 왜 네가 짐을 다 지려 하는가? 오늘도 주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끄끄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김성일 집사
cre8tor@naver.com



:: 낮은 울타리 ::

팔랑귀가 되지 말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한 명이 얼마 전 퇴사를 했다. 이유는 함께 일하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그 동료는 퇴사 전부터 항상 그 상사에 대한 험담을 했다. 배울 점이 없고 말투가 공격적이라고 말이다. 매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점점 ‘그 상사분이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료가 하는 말에 수긍하며 함께 동조하게 되었다. 동료가 그 상사분을 보는 시선으로 나도 함께 보게 된 것이다.

점점 나의 회사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지치고 일이 재밌지 않았다. 하루는 일을 하는데 쉽게 짜증이 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 기도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전에 보였던 단점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분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

습이 보였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눈을 가려 이분의 장점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니 그 상사분도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다가와주셨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나에게 크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직장 동료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니 그분을 올바르게 보게 되었고 일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다.

이렇듯 사람과 마귀가 하는 말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마귀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팔랑귀가 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모조리 파랗게 보인다고 하셨다. 팔랑귀는 내 눈에 빨간 안경을, 파란 안경을 끼운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눈을 잃게 한다.

팔랑귀가 되지 말자. 사람의 말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자. **장수정**

하나님의 눈물병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고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흘리는 눈물은 이 시처럼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실패, 좌절, 고난 속에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 사랑은 만족함이 없고, 어떨 때는 계속 더 주저앉고픈 무력함에 빠트리곤 하지요.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고난은 달라집니다. 눈물 앞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울어줄 영적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이 기록하는 귀한 믿음의 선전들 역시 그 눈물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이 도와준 술관장이 악조한 바를 잊어버리는 그 수많은 치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Good News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물고기들이 모여서 물 밖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궁금해 하며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늙은 물고기가 설명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물속

다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리워하던 동생 베나민을 만나고 방에 홀로 들어가 울고 나와서는 그 기색을 지웠으며, 차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방성대곡 할 때도 믿음이 없는 애굽의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지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신뢰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충성하는 것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꾀박으로 쫓겨 다니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는 그 비참함 가운데에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읊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56:8) 하나님이 담아주실 자신의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강한 위로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

에 살고 있단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인데도 날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서 느끼지 못하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란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듯,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매한 인생들을 깨우치는 우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는 아직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

게 인정받으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눈물에 관한 재미있는 풍속이 있는데, 바로 슬픔의 눈물을 받아두기 위해 눈물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병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흐르는 눈물을 그 병에 담아 두었고, 죽을 때 눈물병을 함께 매장해 주었다고 하지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눈물병을 채우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눈물의 기도를 보냅니다. 당신께 하나님의 소망이 머무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담는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진 우리 눈물의 기도를 다시금 주의 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물의 기록들이 무언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자녀들을 위한 것들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인명 집사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축복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속의 잠언 ::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경상북도 경주 안강으로 내려온 지 벌써 7개월입니다. 그동안 힘겨웠던 건강도 어느덧 회복이 되어가고, 시장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했던 스터디카페 사업도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창업한 스터디카페는 학생이 많은 곳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사업 요건이 되는데, 막상 사업 시작 후 안강에서 고교생 수를 파악하고 놀랐습니다. 고3 학생 수는 100여 명이 안 되고, 그나마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 학습 덕분에 학생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어느 지역의 매출은 저의 매출보다 3배를 웃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원유가 매장되어있지 않은 곳에 정유공장을 세운 실책을 후회하면서 한나처럼 격동하는 모습을 본 공사업체 대표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으신 분인데 곁에서 지켜봐도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2억 넘는 공사를 조

건 없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도 풀고 천천히 공사비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여 넘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곧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창업과정의 수업도 듣고 SNS 마케팅수업도 받았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벌인 결과를 후회하면서 이번에는 많은 양의 원유가 매장된 곳에 정유공장을 짓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픈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약전화가 걸려오고, 시장조사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후회의 시간 동안 밤마다 주님께 아뢰는 소원의 기도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찬송을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주님 주세요’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예비하시는 길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수없이 많이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여지없이 응답해주시는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

을 예비해주시고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격동과 번민의 시간으로 술 취한 한나처럼 주절거리는 주절거림이 이방인인 회사 대표에게도 들렸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던 고백의 시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매주 동영상으로 주님 향한 마음을 불붙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셨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방백보다 인생의 갈 길과 답을 찾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고백으로 밤을 새우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보이스피싱

수년 전, 가게 이전 문제로 광고가 나가던 중 권리금을 높게 받아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적지 않은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중도에 빠른 인지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때 갑작같이 속은 내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심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얼마 후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신종 피싱에 또 걸려들고 말았다. 그들의 치밀한 상황극에 악성코드가 있는 어플을 깔았고, 미심쩍은 마음에 관공서에 자문을 구했으나 그 전화도 그들에게 연결되어 이미 각본대로 짜인 그들의 역할극에 넘어가 흘린 듯 거액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마음에 주님을 수없이 불렀고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 세 번 이유 없이 통장에서 지급정지가 되었고, 나중에야 주님이 천사를 통해 인출을 막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행을 방문했을 때 지점장마저도 이런 일은 생소하다며 더욱 진화한 신종 피싱이라 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 매번 물질의 축복을 구했지만 결국 나는 다스릴 수 없는 작은 그릇이었음을. 어느 부모가 면허도 없는 어린 자식이 차를 사달라고 ‘오냐’ 하면서 차를 사주겠는가. 이후 물질의 축복보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 기도했고, 어느덧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성경은 이미 경고하셨다. 말세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다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매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다. ‘돈 달라, 집 달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딤후3:13).

추성숙 집사

